

권선주, KB금융 사외이사된다

〈전 IBK기업은행장〉

여성 사외이사 2명 처음
오규택 교수도 후보 추천

KB금융지주는 25일 사외이사후보 추천위원회를 열고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과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를 임기 2년의 신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 기존 사외이사인 스티UART 솔로몬·선우석호·최명희·정구환 등 4인은 임기 1년의 중임 사외이사 후보로 추천했다.

권 후보는 기업은행에서 리스크관리본부장, 금융소비자보호센터장을 거쳐 여성으로서 국내 최초로 은행장을 역임한 금융경영 분야의 전문가다.

오 후보는 공인회계사이자 중앙대학교 경영경제대학 교수로 모자어족은행, 키움증권 등에서 사외이사로 재임했으며, 공적자금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한 금융 및 재무 분야의 전문가다.

KB금융 사추위는 지난해 12월부터 5년 임기 만료로 퇴임 예정인 유석렬, 박재하 사외이사의 후임 인선을 위한



권선주 전 IBK기업은행장



오규택 중앙대 경영경제대학 교수

절차에 착수했다. KB금융의 사외이사 후보 추천 프로세스는 3단계로 구성되며, 각 단계별로 주체를 엄격히 분리해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이사회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2015년에 선임된 김유니스경희 이사의 2018년 퇴임과 동시에 최명희 이사를 선임하는 등 여성을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전통을 계속 이어오고 있다. 이번 사추위의 추천 후보가 3월 정기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면 국내 금융 지주회사 중 여성 사외이사 2명이 재임하는 최초의 사례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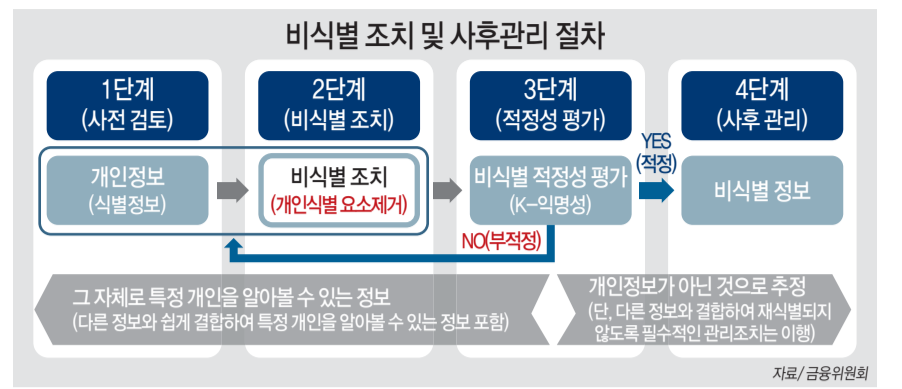
이를 통해 여성 사외이사의 비율은

14.3%(1/7)에서 28.6%(2/7)로 높아지게 되며,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0년까지 목표로 권고한 여성 사외이사(Non-executive director) 비율인 40%에도 한 발 다가서게 된다.

KB금융 이사회 관계자는 “그동안 이사회가 전문성, 직업, 성별 등 여러 방면에서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왔다”며 “그 결과 사외이사의 전문분야가 금융경영, 재무, 회계, 리스크관리, 법률/규제, 소비자보호 등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으며, 외국국적 사외이사·여성 사외이사도 포함되어 있을 정도로 이사회의 다양성이 잘 갖춰져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자는 또 “이번 사추위의 결정이 이사회의 다양성을 한층 더 제고하고, 여성의 사회적 진출 및 이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사외이사 후보 2인 및 중임 사외이사 후보 4인은 오는 3월 개최되는 정기 주주총회 의결을 거쳐 KB금융 사외이사로 정식 선임될 예정이다.

/안상미 기자 smahn1@metroseoul.co.kr



데이터3법 두고 기업들 '머뭇'

오는 8월 5일부터 데이터 3법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 시급

오는 8월부터 시행되는 데이터 3법을 두고 기업들의 눈치보기가 한창이다. 시행시기에 맞춰 데이터를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고 싶지만 활용 가능한 개인정보의 범위가 모호한 데다 오남용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 기업이 데이터를 자유롭게 활용하기 위해선 시행령 가이드라인 등 후속조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5일 금융권에 따르면 개인정보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포함한 데이터 3법이 오는 8월 5일부터 시행된다.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가 특정되지 않은 가명정보를 사전동의 없이 데이터 분석에 활용하는 것이 골자다. 가명정보는 기업·기관이 수집한 개인정보를 일부 삭제하거나 대체해 추가 정보 없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다. 개인식별이 가능한 '개인정보'와 식별이 불가능한 '익명정보'의 중간단계로 볼 수 있다.

문제는 데이터 3법 통과에도 기업의 실질적인 움직임은 없다는 것. 데이터를 처음 활용하는 기업 입장에서 당장 데이터 정보의 비식별화 조치를 어디까지 해야 할 지부터 모호하기 때문. 핀테크 업체 관계자는 “개정안에는 기업이 가명정보를 당사자 동의 없이 이

용할 수 있도록 했지만 가명정보 특성상 가명정보를 여러 개 결합하거나, 가명정보에 추가 정보를 더할 경우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 먼저 나서 이용하기 우려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기존보다 더 엄격한 조항을 담은 것도 움직임을 막는 요인 중 하나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업 등이 고의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도록(재식별)하면 5년 이하의 징역과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전체 매출액의 3% 과징금을 부과한다.

그러나 기업들은 고의성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실이더라도 고의로, 악용하더라도 과실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한다. 이지는 법무법인 리버티 변호사는 “고의적으로 가명정보가 유통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입증할 방법이 없고 과실로 정보가 유통되더라도 개인정보가 확산될 경우엔 처벌이 있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재 데이터 3법과 관련한 시행령, 가이드라인, 법 해설서 등 후속조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맡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려하고 있는 데이터 결합시 재식별이 가능한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며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오는 3월까지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NH농협銀, 분산ID기술 적용 '모바일사원증'

NH농협은행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국내 최초로 블록체인의 분산ID 기술이 적용된 '모바일 사원증' 서비스를 선보였다고 25일 밝혔다.

분산ID 기술은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신원증명(ID)을 관리하는 전자 신분증 시스템이다. 이를 활용하면 개인이 개인정보를 통제하는 권리를 갖게 되며, 기관이 개인정보를 보유해 발생하는 개인정보의 대량 유출을 방지

할 수 있다. 이번엔 선보인 모바일 사원증서비스는 블록체인 네트워크와 분산ID 기술을 기반으로 농협은행과 SK텔레콤에서 공동으로 구현했으며, 국내 최초로 분산ID 기술이 적용된 상용서비스다.

임직원 개인이 모바일로 신청·발급 후에 출입인증 및 출퇴근까지 관리할 수 있어 편의성이 대폭 높아졌으며, 향후에는 방문예약, 간편 결제기능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안상미 기자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NH디지털혁신캠퍼스에서 NH농협은행 장승현 수석부행장(왼쪽)과 SK텔레콤 오세현 전무가 출입통제 단말기에서 모바일 사원증으로 인증하며 출입하고 있다. /농협은행

<h3>온라인투어</h3> <p>www.onlinetour.co.kr 상담문의 1544-3663</p> <p>깜짝 Sale! 터키일주/직항+특급호텔 8/9일 699,000~ 3/30 [선착순특가]</p> <p>①터키직항 ②보스포러스 정류선 ③5대 특식 ④wi-fi 버스</p>	<h3>동남아</h3> <p>단체 / 조기예약 할인행 / 공동구매 항공권 가능</p> <p>다낭/호이안/바나산 4/5일 298,000~</p> <p>방콕/파타야/반나절자유 5일 418,000~</p> <p>보라카이/세일링보트/마사지 4/5일 348,000~</p>	<h3>NONO 패키지</h3> <p>안해서 행복한 여행 NO 팁 · NO 옵션</p> <p>괌 사이판 789,000~</p> <p>뉴질랜드/시드니 10일 2,190,000~</p> <p>다낭/호이안/바나산 4/5일 1,038,000~</p>	<p>사이판 피에스타 5일 769,000~</p> <p>뉴질랜드 남북섬 9일 2,390,000~</p> <p>싱가포르/센토사/오전자유 5일 1,698,000~</p> <p>브루나이/7성급 호텔 4일 1,199,000~</p>
<p>유럽 단체 / 조기예약 할인행 02) 3705-8150</p> <p>발칸 2국/동유럽 4국(2대 야경+아울렛) 9일 1,290,000~</p> <p>스페인/포르투갈/모로코+지브롤터 12일 1,690,000~</p> <p>서유럽 3국 9일 1,299,000~</p>	<h3>호주/뉴질랜드</h3> <p>부산/대구 출발가능 (*별도문의) 02) 3705-8140</p> <p>시드니/골드코스트 6일 998,000~</p> <p>시드니/센트럴코스트/포트스테인 6일 1,049,000~</p> <p>시드니/골드코스트/뉴질랜드 12일 2,599,000~</p>	<h3>괌/사이판</h3> <p>02) 3705-8140</p> <p>사이판 PIC리조트 골드 4일/5일 589,000~</p> <p>괌 PIC리조트 골드 4/5일 699,000~</p>	<h3>동남아</h3> <p>하노이/하롱베이/엔프 5일 848,000~</p> <p>보라카이/5성급리조트 4/5일 748,000~</p> <p>서유럽 4국/파리아정 10일 2,690,000~</p>
<p>서유럽 3국 10일 1,790,000~</p> <p>서유럽 4국/10/12일 1,890,000~</p> <p>이집트 완전일주 10일 1,899,000~</p>	<h3>미주/하와이/중남미</h3> <p>부산 출발가능 (*별도문의) 02) 3705-8180</p> <p>시애틀/캐나다 로키 7일/8일 1,049,000~</p> <p>미들부/캐나다(폭포부속) 10일 1,990,000~</p> <p>남미(미과수/유유니) 4국 11일 5,490,000~</p>	<h3>일본</h3> <p>02) 3705-8120</p> <p>벳부/유후인/후쿠오카 3일 249,000~</p> <p>오사카/나라/교토 3일 299,000~</p> <p>북해도 소운코 비에이 4일 699,000~</p>	<h3>유럽</h3> <p>서유럽 4국/파리아정 10일 2,690,000~</p> <p>하와이(관광/자유) 6/7일 1,290,000~</p> <p>중남미(6국/멕시코+쿠바) 18일 9,790,000~</p>